

16대 대통령 선거 D-1

전자개표 저녁 8~9시 당락 운곽

개표 어떻게 하나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는 인터넷과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오후 8~9시께 당락의 운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44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실시간으로 집계한 개표 결과를 곧바로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로 공개하는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박빙의 승부를 겨루더라도 늦어도 자정까지는 선관위의 경우작업이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오후 8시께 15% 안팎의 개표율을 보이며 당락의 운곽이 드러나고 9시 정도면 승패를 가늠할 수 있으며 10시경엔 당선 유력 후보가 떠오르고 자정께는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개표시간이 이처럼 크게 앞당겨진 것은 단연 '전자개표시스템' 덕분이다. 투표지 스캐닝 기술로 투표용지 분류와 계수작업을 완전 자동화한 기술이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C

가 구축한 전자개표시스템의 투표지 처리속도는 시간당 1만3200장으로 수작업으로 이뤄졌던 15대 대통령 선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전국적으로 242개 개표소에서 모두 930여 대 전자개표시스템이 운영된다. 만약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효표가 대거 속출하지 않는 한 3시간 가량이면 개표 작업이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인터넷 중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저녁 6시 일제히 발표

이날 선거관리에 투입되는 18만 4000여 명 중 개표 관리인원은 전국적으로 1만4000여 명이 투입되며 지난 15대 대선의 절반 수준이다.

개표 후 국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인터넷도 한 몫을 한다.

개표가 완료되면 후보자별 득표수가 자동개표기에서 집계되고 연결된 제어용 PC를 통해 곧바로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에서 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이틀 앞둔 17일 전자개표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계된 개표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각 방송사도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개표방송을 도입했다.

일단 방송사는 투표가 끝나는 6시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고 실시간으로 개표상황을 중계한다.

KBS의 경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무선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선거결과를 제공한다.

MBC는 선거방송의 3원 생방송과

함께 유권자 3000여 명의 후보지지 성향을 3개월간 추적한 결과와 중간 중간 여론조사 결과도 알려준다. SBS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매일경제TV(MBN)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실시간 개표상황을 심층중계한다.

김선걸기자 sungirl@mk.co.kr

신분증 꼭 지참...도장없어도 가능

투표어떻게 하나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는 19일 오전 6시, 전국 1만34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장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준비물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우송한 투표 안내문은 안 가져가도 투표할 수 있지만 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는 외워가는 게 투표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기 쉽다. 도장 역시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6세 미만 어린이는 투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도 된다.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동반자(가족 또는 본인 지명 2인)와 함께 들

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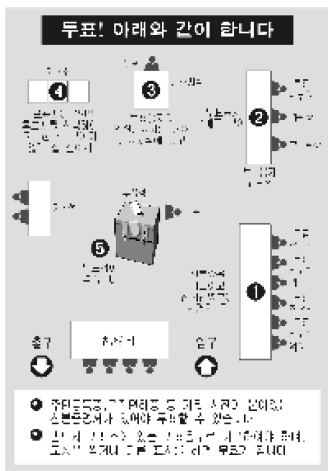
투표소에 들어가면 우선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이어 투표용지 교부식으로 이동하면 7명의 대선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명이 인쇄된 백색의 투표용지 1장을 받는다.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후보자 이름의 옆 공란에 표시를 하고, 이를 투표함에 넣으면 '한표' 행사는 끝나게 된다.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넘어도 그 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번호표를 받고 기



다리다 투표할 수 있다.

황봉현기자

중앙선관위 서울시장에 '주의'

중앙선관위는 17일 최근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정당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특정정당의 주장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그 방법에 따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미경 선대위 대변인은 "선관위가 이 시장의 관권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지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조요청에 그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최근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16대 대선 10대 '뉴 트렌드'

대규모 청중동원 줄고 미디어·사이버선거 부상

이번 16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대선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흐름, 이른바 '뉴 트렌드'를 양산했다. 1 회성 해프닝이나 추후 또 다른 차원의 부작용을 예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번엔 나타난 흐름은 새로운 정치를 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변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대 트렌드를 정리한다.



1. 미디어 선거 특세와 혐의 유세 퇴조

이번 대선의 키워드를 하나만 꼽는다면 미디어 선거의 완전한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청중 동원과 거리 유세가 이번 대선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한 것은 미디어를 통한 유권자 접촉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돈 선거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여실히 입증된 것이 이번 대선이다. 미디어 선거는 그러나 후보와 유권자가 대면접촉할 기회를 잃어가고 내면보다는 이미지에 초점을 두는 정치인의 텔레비전 회화 등을 부각 용이 적지 않다.

2. 드라마성 이벤트 열풍

미디어 선거의 특세는 선거관이 '엔터테인먼트화'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언론이 집중할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쪽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경우 소수정당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는 드라마를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이벤트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후보가 4월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11월 정몽준 통합21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서 승리를 거둔 과정은 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 관객으로 끌어들이는 뜨거운 바람을 몰고 왔다.

3. 여론조사기관의 권력화

이번 대선에서 제3의 파워집단으로 들어선 것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기관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토해내는 분석결과는 선거관의 관찰자라는 고유의 역할을 떠나 선

거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후보단일화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이냐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와 민주당이 서로 자신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4. 사이버 세력의 전면대투

IT와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세력의 전면적 대투는 5년 전 대선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선거캠프 모두가 '사이버 대캠프'를 가동하는 데에서 나타나듯 지금은 이를 빼놓고 선거를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선의 방향

대선후보 모두가 여성에 대한 신심공약을 양산해서인지 본격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7. 신문, 방송, 인터넷의 분화

계층·세대간 갈등에 이어 눈여겨 볼 대목은 일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이 서로 다른 시각과 성향을 이번 대선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지, 정책과 이념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매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8. 정책대결의 시작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선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책대결의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3차례의 TV합동토론회를 국한시킨 것이나 주요 언론에서 정책비교에 주력한 것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장벽부터 먼저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9. 황새정치인의 몰락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철새정치인의 이동현상은 이번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몰락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 해도 당을 이리저리 옮기면 추락하고 만다는 것을 이번 대선은 보여주고 있다.

10. 3김시대의 종언

이번 대선으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가차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3김이다. 3김과 가까우면 오히려 표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만큼 규정치질서는 이번 대선으로 추방되는 모습이다.

이번 대선을 고비로 3김은 유물로 남고 한국정치정치는 새로운 방향과 질서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상형기자 imgm@mk.co.kr

이벤트 따라 후보지지율 출렁 3金종식·지역감정진정은 성과

을 좌우하는 핵심세력으로 떠올랐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큰 자극을 줄 만큼 앞서가는 이 같은 흐름은 5년 뒤 대선에선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5. 지역감정의 진정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소득은 지역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구도에 기반한 선거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지만 적어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5년 뒤 대선에서 지역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 계층·세대간 갈등 심화

지역감정이 줄어든 대신 새로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이번 대선의 특징적 양상이다. 이른바 계층·세대간 갈등이 그것이다.

20대, 30대, 40대, 50대마다 다른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지지자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젠더(남녀 성별)' 이슈는